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**(가)**

어져 어져 저기 가는 저 사람아

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

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

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

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

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

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

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(軍丁) 싫다 하고

**자네**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(一土) 한 인심에

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

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

칠팔월에 ㉠**인삼** 캐고 구시월에 돈피\* 잡아

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

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

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

가사 전토(家舍田土)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

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

이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

**그대** 말씀 그만두고 **이내** 말씀 들어 보소

이 내 또한 갑민(甲民)\*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냐

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

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

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

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

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

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

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

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

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 나니

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(充軍) 되것고야

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

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

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

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

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

해마다 맡아 무니 석숭\*인들 당할쏘냐

- 작자 미상, <갑민가> -

\*돈피 : 담비 가죽.

\*갑민 : 갑산의 백성.

\*석숭 :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.

**(나)**

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**아희**들아

앞내 ㉡**고기**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\*에 넣어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

우리도 서주(西疇)\*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말동 하여라

- 작자 미상, <녹양방초 언덕에> -

\*다래끼 :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.

\*서주 : 서쪽 밭.